중국문명의 안내서

진시황제의 무덤
웬난 지음 • 허유경 옮김
크림슨 펴냄 | 1만4000원

진시황제의 테라코타 군단이 부활한다.

2000년 이상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켜온 진시황릉 6 · 7호 갱의 발굴 성과를 다양한 삽화와 함께 실은 중국문명 안내서이다. 중국 최초의 황제 진시황의 통치력을 보여주는 진나라의 축소판인 무덤에서 출토된 자료는 사마천의 <사기>와 같은 역사적 기록의 일화를 뒷받침 한다.

<진시황제의 무덤>에서 발견된 문관용은 진나라 고고학 연구에서 처음 발견된 것이다. 진시황릉을 발굴한 지 근 30년만의 중대한 수확중 하나라는 학계의 평가를 받았다. 그 전까지 발견된 병마용 위주의 방대한 군진이 진나라 제국의 정치 · 경제 · 문화를 완전히 대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중국 최초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고고문학가로 그의 작품에는 역사와 현실이 함께 녹아 있다. 고대와 현재를 넘나드는 사건과 일화를 고스란히 재현한다. 가연숙 기자

74편의 일기를 담은 시집

그늘의 발달
문태준 시집
문학과지성사 펴냄 | 7000원

'눈물은 웃음을 젖게 하고 그늘은 또 펼쳐 보이고 나는 엎드린 그늘이 되어 밤을 다 감고 나의 슬픈 시간을 기록해요.'

소처럼 크고 맑은 마음의 눈을 지닌 시인 문태준이 잠시 꿔온 빛으로 써내려간 슬픈 시간의 기록을 시집으로 엮었다. 등단 14년 만에 펴낸 네 번째 시집은 74편의 일기를 담았다.

<그늘의 발달>은 느슨하고 유연하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누이 그리고 어머니에게 얽힌 잃어버린 시간의 파편으로 천천히 귀화한다. 까만 염소가 되고 싶어 하던 아이는 그 시간의 기억을 맴돈다. 아버지가 고향집 감나무를 베는 것을 바라보며 '그들이 지붕이 돼도 좋겠다'며 '삶이란 결국 그늘의 발달을 부르는 일'이라고 고백한다.

시인이 조명하는 시어의 세계는 평화와 정감이 가득하다. 삶의 깊은 곳을 관통하는 소용돌이는 나와 나의 세계를 감싸는 그늘로 교차된다. '나의 하루가 또 그늘을 짓고 말았다'는 시인의 말처럼 물러나는 빛과 물러나는 어둠의 시간에 서성인다.

조금씩 들어서는 빛처럼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소리가 창문에 들어설 때 맥박의 미동을 즐기는 그 시간이 황홀하다. 시인의 낮선 호흡은 탈문법화되고 탈서정화 되고 있는 현대 젊은 시의 추세에 동요하지 않는다. 묵묵한 소처럼 향수의 길을 산책하는 방식이다. 느리다는 것은 상대적인 것. 힘 있는 그의 시어들은 눈물을 달고 어룽어룽 바람 속에 흔들리다 문득 내 뒤에서 그림자가 된다. 가연숙 기자

성품 깨닫는 순간 섬이 된다

'파도소리를 타고 들어가라. 길은 바로 여기에 있으니.'

바다는 여름날 들뜬 기운을 차분하게 하고 섬들은 가부좌를 틀고 깊은 선정에 들었다. 하늘과 바다는 도장을 찍은 듯 하나로 만나 안과 바깥이 한 결 같이 둥글어서 꿰맨 흔적 없는 마음인 듯 그대로 본래면목을 드러낸다.

한 생각 일어나면 바로 알아차려 돌이켜 화두를 든다. 그 자리에 바로 부처가 출현하는 까닭이다. 자성의 바다에 굽이치는 파도를 통해 한결같은 성품과 교감을 나눠온 일선 스님(금천선원 선원장)이 섬 속에 또 하나의 섬으로 살아가며 돌이킨 화두의 본래 자리를 글로 엮었다.

수행이란 참으로 치열한 삶의 현장이다. 송광사 수련법회에서 10년 넘게 좌선을 담당했고 소록도에서 배를 타고 한참 들어가야 닿는 섬 거금도 토굴에서 정진의 불씨를 다듬고 있다. 온몸으로 부딪치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운 궁극의 길이다. 고뇌하는 몸부림이 힘겨워지는 순간 파도처럼 쉼 없이 들이대는 자성의 면모는 수행자에게 한 없이 투명한 거울이 된다. 허공과 같은 천연의 성품과 대면하는 순간이다.

"오직 자기를 회광반조 하여 일상을 떠나지 않으면서 수행의 확신을 지녔으면 합니다. 이 책과 대면한 사람 누구누구나 일시에 자기가 무너져 더 이상의 방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받는 중생을 위해 한결같은 어머니의 손길로 보담아 주는 관세음보살님의 해조음이고 싶습니다."

망망한 바다에서 나침반이 있다는 안도감은 방황끝 희망을 암시하듯 에세이 <소리>는 인생의 겸허한 나침반이 되고자 한다. "부처님께서 자등명법등명(自燈明法燈明)을 설하신 바도 인생이라는 끝없는 고행 속에서 나 스스로를 섬으로 삼아 스스로에게 귀의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처음 섬에 오는 배에 오를 때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외로운 마음은 천 길 낭떠러지에 서 있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뛰어내리고 나니 법성의 바다에서 빈 배와 같이 물결을 따라 자유롭게 오르내리게 됐습니다."

스님은 "파도소리를 통해 본 성품을 깨닫는 순간부터 나는 섬이 된다"고 말한다. 형상의 바다를 보지 말고 마음의 바다를 보라한다. 파도소리를 도우(道友)삼아 세월의 바람에 밀밀한 하심을 띄운다. 헤아릴 수 없는 밤을 홀로 깨어 있던 바닷가 몽돌은 파도의 법문을 헤아린 바다의 사리다.

누구나 꿈꾸는 마음의 고향에서 장엄한 파도의 물결 따라 삼매의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이 되라. 자성에 꽂히는 그 순간 흔적 없이 사라지는 성스러움의 고귀한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인생의 고해에서 표류하지 않고 위풍당당하게 살아가는 진리는 경계에 여여한 마음의 주인에게 그 열쇠가 있다고 전하는 파도의 읊조림이다.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산사 공양간 12곳 탐방

산사의 아름다운 밥상
이경애 글 • 하지권 사진
아름다운인연 펴냄 | 9800원

'겸허하고 고요한 시간, 새벽 5시 30분. 죽비소리와 함께 스님들의 발우 공양이 시작된다.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있고 한 알의 밥에도 만 사람의 노고가 깃든다.'

장수의 비결은 제철 음식과 소식에 있다. 자연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선한 재료로 만물일여(萬物一如)의 해답을 실천하는 산사의 공양간 12곳을 탐방한 에세이집이다. 음식으로서 설법하는 교화방편의 장 공양간에서, 그 곳의 문을 두드린 지 5년 만에 세상에 공개되는 산사의 아름다운 밥상이다.

<산사의 아름다운 밥상>은 산사 풍경과 어우러진 사찰음식 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간 후에도 직접 요리할 수 있는 비법을 함께 제공한다. 간소하게 차려진 절집 밥상 위에 차려진 자연의 별미를 그대로 우리네 식탁위에 이동시키는 것이다.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경건하다.

"재료도 구하기 쉽고 건강에도 좋은 본연의 맛을 되찾아야 합니다. 제 몸을 위한답시고 비싼 돈으로 쓰레기 음식(Junk Food)을 사먹는 우매한 세상에 전하는 절집 공양간 소식이 기특한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저자 이경애(북촌생활사박물관 관장)씨는 속인의 기웃거림에 문전박대하던 공양주 보살의 호통이 사실은 기분 나쁘지 않았다고 전한다. 300년 넘은 선암사 청매실로 담근 장아찌를 '아삭' 맛보는 순간 깊은 맛으로 전해지는 신맛의 상큼함이란 명품중의 명품음식이기 때문이다.

가연숙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신심	혜인	클리어마인드
3	구름을 헤치고 나온 달처럼	정명	불교정신문화원
4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5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이야기	과경	불광출판사
6	원력	혜인	클리어마인드
7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롬미디어
8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원철	뜰
9	살아 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10	인연	정찬주	작가정신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불교서적이 모이는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자기 최면, 치료최면
(최면 시술사 과정)
• 개강일 : 8월 20일 수요일반 • 교육시간 : 오후 1시
▶ 교육 기간 : 6주(24시간)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60만원 ▶ 대상 : 스님, 포교사, 불자
특기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유일한 곳
수행과 포교 또 중생 구제에 바쁜 스님들께 귀의 합니다.
소승은 스님들께서 시간에 쫓기시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스님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에 모든 거품을 빼고 최단기, 최소 교육비로 보시 하고자 합니다.
소승은 자리이타의 정신과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 - 무초 정락 합장 -
(사) 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애경백화점 맞은편 세일빌딩 401호 ☎ 02)763-0661~2
★ 최면을 배우시고도 시술을 못하시는 분, 자기최면이 안되는 분 개인지도 ★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68기 佛教儀式 (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8년 8월 27일까지 ◆ 개강일시 : 2008년 8월 28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